

‘금강산 방문 재개’ 불교평화연대 성명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다. 우리는 단결해야 할 수 있다.”

불교자비평화실천중앙협의회(이하 사장 황정, 이하 불교평화연대)는 7일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방문을 재개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불교평화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불교는 60년 분단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조석으로 부처님 전에 발원하고, 상호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노력해왔지만 현 정부가 아직도 금강산 방문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속히 금강산을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민족이 60년을 기다려 성사된 금강산 방문이 중단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현 정부가 대승적 정치결단을 내려 남북 형제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불교평화연대는 “앞으로도 우리조국의 통일과 단결을 발원하는 불공을 드릴 것”이라며 현 정부에 금강산 방문 재개를 촉구했다.

박선주 기자

초심으로 돌아가 북 돕기 ‘앞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9월 이후 옥수수 1만톤 북에 지원” 밝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9~11월 추진한 ‘북한돕기 캠페인’으로 총 1만톤의 옥수수를 북에 전달했다. 이는 올해 한해 민간단체지원의 원조 중 최대 규모이다.

북한이 남측 당국의 옥수수 만 톤 지원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민간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인대표 영담)은 북한 식량난 완화를 위해 9월 이후 옥수수 1만톤을 북한에 지원했다고 12월 8일 밝혔다.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간 교류 사업을 통해 남북간의 반목과 대립을 깨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의 화해와 공존을 이루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1996년 설립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 단체는 온라인 소식지를 통해 “9월 1일 1차로 옥수수 4500톤을 중국 단둥-북한 해포(海路)를 통해 지원한 데 이어 10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 나머지 5500톤의 옥수수를 단둥-신의주간 철도(육로)를 통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돈 40억원어치다. 이 단체는 또 최근 옥수수 1000톤을 추가

지원한 사실도 밝혔다.

강영식 사무총장은 “어려워만 지는 북한경제와 현 정부들어서 위축된 대북지원 사업을 보여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 북한돕기 캠페인을 진행하자 결정했고, 이에 지난 6월부터 동참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강 사무총장은 “영담 스님이 6월 23일 창립 13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창립당시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것도 우리가 다시금 북한돕기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번 옥수수지원으로 단체 내부의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민간도 1만톤을 지원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민간단체 차원에서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원조 중 최대 규모이다.

또, 이번 옥수수 지원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해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지자체와 종교계가 동참했으며 단체 회원들도 십시일반으로 참여했다.

한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이 외부세계에 알려지고 북한이 긴급지원을 호소하던 1996년 6월 21일에 창립된 한국의 가톨릭, 개신교, 불교 등 6대 종단과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운동조직이다.

2007년에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특별협의지위(NGO 자격을 부여받은 인도적지원·평화·남북통일 NGO)로 거듭났다.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혜충 스님 등 대원상 선정

청안 스님·박성배 교수 등... 시상식은 23일



혜충 스님, 청안 스님, 박성배 교수.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12월 8일 신라호텔에서 제135차 이사회의를 열고, 제7회 대원상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

대원상 대상 승가부문은 조계종 포교원장 혜충 스님과 향가리 원광사 주지 청안 스님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고, 재가부문은 박성배 메 스토니북부 뉴욕주립대 교수가 수상했다.

단체부문은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대표 법등)이 불교미디어콘텐츠 부문을 하훈(NamuArt 대표)이 수상했다. 특별상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대표 도경)와 이경재 실상사 작은학교 교장, 김영수 불교조각실 Dharma 대표가 뽑혔다.

대원상(大圓賞)은 대한불교진흥원의 설립자인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자 마련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된 상이다. 진흥원은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불교정신과 사상의 보급과 전파를 위해 모범적으로 정진하고 있는 불자 및 단체를 선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23일 오후4시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 법당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대상은 각 1000만원, 특별상은 각 5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조동섭 기자

사찰에너지 관리 지침 등 ‘필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환경위 ‘사찰에너지 개선’ 토론회

종교기관 최초로 사찰에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혜경)와 환경위원회(위원장 주경)가 공동으로 12월 15일 한국불교의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사찰에너지 사용방안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발표는 △사찰 에너지진단 및 사찰에너지효율화방안 (서백호 에너지관리공단 팀장) △사찰내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윤선우 LG전자 차장 등) △사찰의 대체발전과 조립, 사찰림 활용방안 강구(신준환 국립산림과학원 부장 등) △신재생에너지적용 및 조립에 따른 사찰경관 연구(이예경 동국대 교수)로 진행된다. 이 어지는 종합토론회는 주경 스님, 장명 스님(중앙총회 의원),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대표가 맡는다.

서백호 에너지관리공단 팀장은 ‘사찰 에너지 진단 및 사찰에너지 효율화 방안’ 발표문을 통해 컴퓨터, 조명관리, 보일러, 열관리 등 총체적인 사찰 에너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찰 에너지기구의 효율적 관리, 사찰 에너지시스템 관리를 위한 지침 및 관리체계 마련,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Energy Service Company) 활용, 에너지 설비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 활용 등의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윤선우 LG전자 차장과 이명규 LG전자 과장은 조사대상인 10개 사찰의 에너지 사용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발표를 통해 “사찰에 고효율 공기열원 히트펌프와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을 적용시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준환 국립산림과학원 부장과 천정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는 조사대상 10개 사찰의 인상도와 바이오매스 추정결과를 정리하고 특히 양산 내원사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관련 사례를 분석, 사찰림의 임목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신·재생 에너지적용 및 조립에 따른 사찰경관연구’를 맡은 이영경 교수는 “태양광 시설 설치 시에는 전통사찰의 경관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요구된다”며 ‘신·재생 에너지 이용 시 사찰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회부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2010년 1월 정책연구를 마무리 짓고, 최종보고서를 발간한다.

박선주 기자

‘코리안 특급’의 비결은 ‘명상’

박찬호 선수 서울대서 특강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불자 선수 박찬호(사진, 서른 일곱, 야구선수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코리안 특급’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명승부를 보여준 그가 자신이 부상과 부진을 거듭하면서도 재기할 수 있었던 비결을 마음공부로 소개해 눈길을 끈다.

박찬호는 11월 26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내가 경험한 메이저리그’를 주제로 특강했다. 박 선수는 “부진에 빠져 ‘여기가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면서 “그때마다 팬들의 응원 메시지와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으로써 부진을 극복했다”고 밝혀 청중을 감동시켰다.

“시골이었던 공주에서 그저 야구를 잘하고 싶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시련과 고통이 괴롭고 힘들다는 생각보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나를 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벼랑 끝에서 찾은 ‘나’는 박



찬호 선수를 되살렸다. “야구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가짐은 박찬호를 변화하게 했다. 구원투수로 2번 등장해 3회 무실점의 쾌거를 얻어냈다. 그 페이스가 월드시리즈 진출까지 박찬호를 이끌었다. 박 선수는 리그에서 인정받는 투수로 재평가됐다.

이에 앞선 9월 11일 MBC 스페셜 ‘박찬호는 당신을 잊지 않았다’ 편에서도 박찬호의 자기수행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프로그램에서 박찬호는 “젊었을 때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만 살았는데 절을 하면서 내려오는 것도 배웠다. 명상을 하지 않았던 힘들었을 때 자신 고단하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다”고 말해, ‘코리안 특급’의 원동력이 마음공부에 있음을 밝혔다.

조동섭 기자

“자연에 대한 폭력 참회하자”

종교환경회의 15일 ‘4대 교단 공동 기도회’

수많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4대교단사업이 강행되는 현실을 생명의 위기로 진단한 종교환경회의(공동대표 수경)는 12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4대교단 개발사업 저지를 발원하는 ‘4대 중대 공동 기도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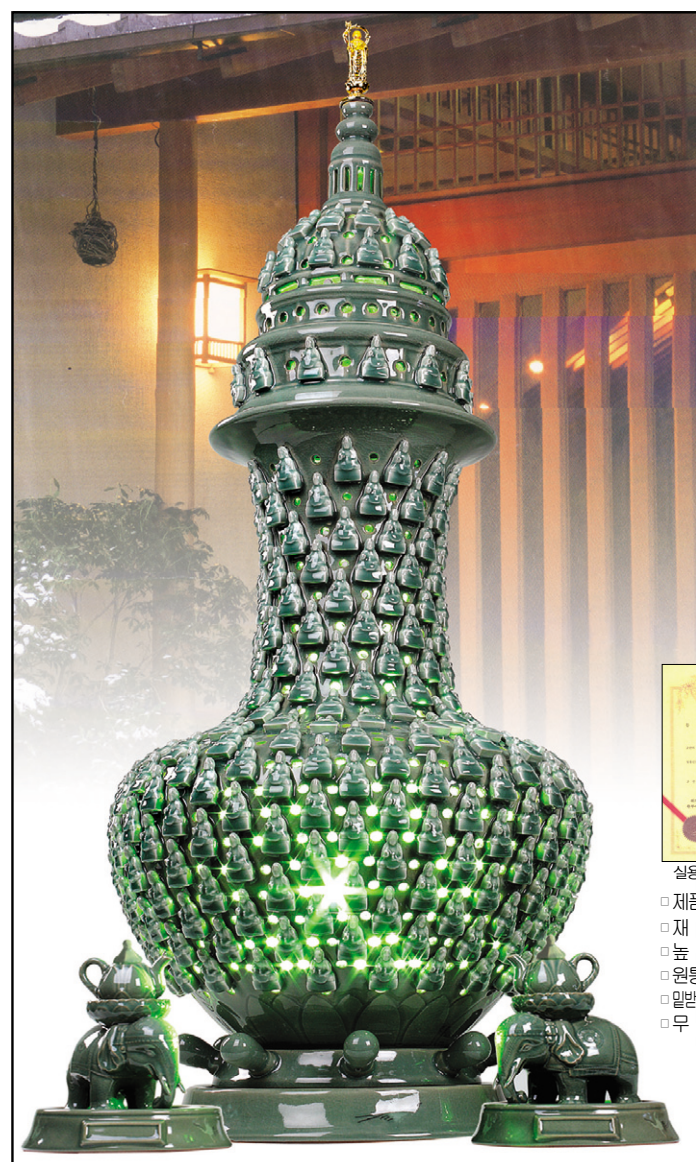
오영숙 수녀(사랑의 지른 수녀회)의 사회로 진행되는 기도회의 1부는 청화 스님(前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장)의 여는 말씀으로 시작해 △4대 중대 입장발표 및 기도회 △각종단별 의식 △기도 △생명의 노래 △공공선언문 낭독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2부는 종교인 행진 및 한나라당 대표 면담 자리가 마련된다. 종교환경회의는 “생명은 종교 본연의 자리이며 생명을 보살피는 일

은 종교인의 신성한 의무”며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폭력을 회개하고 자신과 시대를 정화하기 위해 4대 중대 공동기도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각 종단별 주요 지도자와 신도들을 포함해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종교환경회의는 종교 간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해 지역사회 공동체·친환경적인 생명살림의 초석이 되고,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전환을 통해 문명사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2001년 창립한 4대 종교(불교, 원불교, 개신교, 가톨릭) 단체들의 연대 모임이다.

박선주 기자



업장소멸 범륜대 (윤장대) 사찰경제 살려!!!

매일매일 경전을 읽는 공덕 업장이 소멸하는 범륜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쪽 범륜대 1080분의 부처님이 봉안되어 가족 이름은 물론 경전을 복사하는 행사가 줄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전생록에 기록된 금강경을 각 개인마다 다른 숫자로 범륜대에 복사하게 되어 전생에 묵은 빛, 해탈이 복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 범륜대의 특징

1. 대한민국 수제명품으로 불교문화의 예술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범륜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전기로 걱정 없이 에메랄드 빛이 나는 10w 전구 하나로 조망되어 범당 장엄은 물론 사찰경제 지킴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도량에 따라 (관음, 지장, 약사여래 등) 천불 및 만불전 범륜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1-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재면 개령리 1156-4 말마사



실용신안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전불봉안범륜대
○ 재질 :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 110cm
○ 원통폭 : 45cm
○ 밑받침폭 : 30cm
○ 무게 : 25kg



범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 연중 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